청년불자들 결혼 문제에 관심을

현불논단



김응철 교수
중앙승가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나는 절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매년 약 50여건의 신청자만 있었는데 최근에는 전화문의가 1600여건, 이메일 접수는 50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 동안 불교계에서는 청년들의 결혼문제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으나 일부사찰에서 칠석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례가 있다. 충북 옥천 대성사에서는 지역 교육청 및 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선남선녀 인연 맺기 백일기도를 봉행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교계에서 세간의 결혼문제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서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023년도에 출생한 우리나라 인구는 23만 명이고, 사망한 인구는 35만2000여명으로 그 차이는 약 12만2000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출생아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혼인건수는 2023년도에 약 19만3000여건으로 나타났는데 2007년도에 34만3000여건에 비하면 약 14만9000여건, 43.6%가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혼인건수의 감소는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변화시키고 있다. 반면에 국제결혼의 사례는 2023년도에 약 19만700여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외국인 아내는 14만700여명, 외국인 남편은 약 5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청년법회 축소되며 교제도 줄어
가족 종교일치 증가, 대책 필요
청춘남녀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내국인간의 결혼이 감소하고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또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부부의 평균 결혼생활 지속기간은 10.1년으로 내국인 부부의 16.8년 보다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결혼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청춘남녀들이 흉금을 터놓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인들의 소개나 결혼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조건이 중시되면서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와중에 청년층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점차 젊은이들의 건전한 교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불교계는 그 동안 청년포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법회도 거의 사라지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서 불자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 것이다. 이에 더해 다종교사회에서 가족의 종교 일치도를 강조하는 종교들이 많아지면서 불자 청년들은 더욱더 배우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거나 국제결혼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결코 녹녹치 않은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

지금부터라도 각 사찰에서는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청년불자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각 지역의 교구본사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불자들의 결혼문제는 사부대중이 모두 심사숙고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

세간과 출세간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햇살은 곱고 바람은 살갑다. 덩달아 우리들의 가슴은 울렁거리고. 바야흐로 봄이 왔다는 소리다. 더 보탤 말도 더 뺄 말도 없다. 나에게 봄은 언제나 단문의 감탄사인 '좋다'였다.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군대나 갈 수밖에 없었던 1980년의 이른 봄 단 한 번만을 빼고는. 봄이어서 더없이 좋은 나날들이다.

일주일에 두어 번 광화문에서 타거나 내리는 광역버스를 이용한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사거리를 오가는 행인들을 구경하는 재미가 여간 솔솔하지 않다. 사람들의 표정이나 옷차림에서 그날 날씨나 기분, 세상 돌아가는 낌새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가만히 웃음을 머금거나 얼굴을 조금 찡그려보기도 한다. 밤늦은 시각에는 헤어지기 싫은 젊은 연인 한 쌍이 차창을 사이에 두고 수화와 대화가 뒤섞인 작별의 말들을 쉼 없이 주고받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한다. 나에게도 저런 청춘의 시간이 있었을 테지. 아쉽지만 광화문연가 속의 정겨운 풍경은 여기까지다.

작금의 서울 광화문 일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 선고일을 앞두고 거의 날마다 야단법석과 아수라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말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순신 동상을 경계 삼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마치 남북 간의 이념대결이라도 벌이는 듯한 살벌한 모습들을 연출한다.

광역버스서 광화문 풍경 보면
나라가 두 쪽 날까봐 두렵다
정녕 봄날은 저 멀리에 있는가

아는 사람 중에 경남 진주에서 올라오는 퇴직 교수 부부는 탄핵 반대파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에서 서울 나들이를 하는 금슬 좋은 중년 부부는 탄핵 찬성파다. 비겁한 나는 양쪽의 입장을 똑같이 그것도 아주 진지하게 응원한다.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대단하시다고, 당신 같은 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다고, 그럴싸한 추임새도 넣으면서. 하지만 돌아서면 긴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이러다 나라가 정말 두 쪽이 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하고 무섭기 조차하다.

엊그제의 일이다. 2년째 연재물을 기고하고 있는 교계 잡지사 편집실로 지방의 몇몇 독자들이 최근 대통령을 비판한 내 글을 문제 삼아 거친 항의를 쏟아내고 있다는 전언을 들었다.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런지 내심 당황스럽다. 다시 읽어봐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지만,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자들에게는 전혀 다르게 읽히는가 보다. 원고의 내용이라고 해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인 검찰과 특정 고등학교의 인맥을 너무 중시하는 듯한 인사 스타일을 공(公)적 윤리의 측면에서 약간 꼬집은 정도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령의 여진이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싶다. 피붙이 가족 간에도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정녕 우리가 바라는 따뜻한 봄날은 저 멀리 있는 것일까. 봄날 저편의 광화문 풍경이 아직도 겨울인 것만 같아 씁쓸한 하루였다.

社 說

태고종 대사회 사업에 거는 기대

태고종이 올가을, 신도 1만명이 참여하는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광화문 일대에서 봉행한다는 소식이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3월 13일 열린 '2025 신년 기자회견'에 올해 계획을 밝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제교류를 통한 대사회 사업이다. 태고종은 10월 18일 광화문 일원에서 태고영산문화축제를 연계한 국제 대승보살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국내외 불자 1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계법회에는 해동율맥 전수자인 수진 율사 스님과 대덕 증명 스님들이 법사로 나선다.

중국 불교계와의 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다. 올 상반기 중 중국불교계와 통합과 화해의 시대를 열었던 태고보우 국사의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준비하고 상호 협력 하에 사업 추진을 해 나갈 방침이다.

송현녹지공원과 연계해 한국전통불교문화전승관 4층에 시민명상센터를 마련하는 점도 의미가 깊다. 바쁜 일상에서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참선을 통해 번뇌를 내려놓게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이다.

태고종의 2025년 슬로건은 '함께 하는 세상,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시대'이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대사회 활동을 강화해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태고종의 다양한 대사회 사업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한다.

가족이 사찰로 와야 불교가 산다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가 불교계 최초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 운영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더프라미스는 3월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울형 키즈카페 동대문구 답십리1동점은 미끄럼틀, 시장놀이, 주방놀이 등 유아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 단체가 서울형 키즈카페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복지활동의 역역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민간시설에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나 불교계의 지원 미비로 선정이 되지 않았다. 교회를 중심으로 종교계 참여가 두드러지며 속속 성과를 나타내자 불교계에서도 서울시의 주요 복지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난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서울형 키즈카페 위탁운영을 주제로 포럼도 열었다.

서울의 경우 유력한 전통사찰들은 산 속에 있어 키즈카페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한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키즈카페 유치에 사찰은 이래저래 불리한 점이 많다.

부모와 자녀를 사찰로 이끄는 것이 꼭 키즈카페일 이유는 없다. 이 역시도 복지와 포교의 방편이다. 불교계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가족을 어떻게 사찰로, 불교단체로 이끌 것인가이다. 개종률이 감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종교일치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가족은 전법·포교의 가장 기본 단위다. 가족이 사찰로 와야 불교가 살아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04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 소집 공고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80차 중앙종회를 3월 24일 월요일 오후 1시 서울 일붕선원에서 개최하오니 중앙종회 의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9일
일붕선교종 중앙종회의장 도정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식

대한불교삼론종은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천 천룡사에서 제11대 총무원장 남륜 스님 취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기에 이를 알립니다.

불기 2569년(2025) 3월 1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3월 1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